

# 전남도 생활밀착정책단 2270건 제안

올 8기 참여단 107명 역대 최대  
124건 채택·3건 전국 우수제안  
성과 보고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



전남도 생활밀착정책 참여단이 성과보고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생활밀착정책 참여단이 올 한 해 사상 최대인 2270건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124건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산림복지서비스 절차 간소화' 등 3건은 전국 우수제안으로 뽑히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2022년 생활밀착정책 참여단 성과보고회'를 지난 23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어 유공자를 표창하고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생활밀착정책 참여단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수참여단 시상, 성과보고, 우수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2021년 3월부터 활동한 전남도 제8기 생활밀착정책 참여단은 107명으로 구성됐다.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할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활동을 꾸준히 펼쳐 참여단 출범 이후 최대실적인 2270건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중 124건이 채택됐다. 또 '산림복지서비스 절차 간소화 제안', '전입 인센티브 신청 간소화 제안' 등 3건의 제안이 전국 우수제안으로 채택됐으며 그 중 '산림복지서비스 절차 간소화 제안'은 산림청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시·군별 정책설명회, 정부혁신 국민평가단, 국민 규제토론회 등 각종 정책현장 등에 참여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남 의과대학 유치, 여수 세계 섬 박물관 홍보 등 도정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각 지역 나눔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행복 전파자 역할도 하고 있다.

이날 유공자 표창에선 도정발전과 도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에 기여한 김태진 생활밀착정책 나누시 참여단 등 8명에게 전남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성과보고에선 강선미 생활밀착정책 참여단 대표가 주요 공원 반려동물 배변수거 분투 설치, 공사현장 임시보행로 필수 확보 등 주요 제안 발굴 상황과 정책참여·나눔봉사활동 등 8기 활동 사항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선 박영식 광양 참여단 대표가

정부부처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운영제도와 우수제안 만드는 방법을 공유했다.

강선미 대표는 "작은 제안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작은 생활 속 불편함도 꼼꼼히 살펴보고 찾아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참여단의 꾸준한 활동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이룰 수 있어 감사하다"며 "생활밀착정책 참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겨울철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내년 2월까지 시가지대 발굴  
긴급지원 등 종합대책 추진

기준 37만2000원, 등유바우처 가구당 31만원, 긴급연료비 가구당 11만원도 지원한다.

또 전남도의 으뜸 행복사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도 겨울철 대비 노후주택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수리, 창호단열, 보일러 수리 등 대대적인 집수리를 실시해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밖에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를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전남도는 한파 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어르신 지킴이단 등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 안전을 확인하는 등 한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1705개소에 대해 동절기 일제 안전점검을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한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고물가와 한파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인 만큼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도록 행정 시스템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긴급생계비 및 난방비 지원, 노후주택 수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위기가구는 공과금 체납, 질병, 실직 등 입수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97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촘촘히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겐 긴급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맞춤형 복지급여,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 대상자의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4인

#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175억 연말까지 지급

전남도, 유기·무농약 직불금 포함

에서 70만원까지, 과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채소·특작·기타작물은 65만원에서 130만원까지다.

전남도가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액을 175억원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5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2만ha로 국비 127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액 222억원의 57%에 해당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83만원이다.

지급 가능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로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원

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은 5년 이후 50% 하향 지원되고, 무농약은 3년 이후 지원 중단됨에 따라 도 자체 사업으로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의 5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이 유지·보전되도록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과 동일하며 지급 면적은 약 1만3000ha로, 1만1000여 농가에 48억원이 지급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한 농가의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전남정보문화진흥원 SOS랩 사업 성과 보고회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전남 SOS랩 운영 및 소프트웨어(SW) 서비스 개발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SOS(Solution in Our Society)랩'은 '사회 문제 해결 실험실'이라는 의미다.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전남도민으로 구성된 시민연구반이 지역 사회문제를 발굴, SW 기술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진흥원은 나누와 목표, 순천 지역을 대상으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SW를 통한 지역의 문제 해결 14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한 바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시민연구반 및 퍼실리테이터, SW서비스 개발기업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남 SOS랩 운영 성과 보고,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SW서비스 내용 설명, 성과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전남 SOS랩 사업을 통해 선보인 SW 서비스 중 '전남지역 기반 정보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트윈 키오스크 개발 및 설치' 과제는 전남 이외에도 부산, 서울의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섯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나주 농촌마을 전기충전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APP 실증' 과제는 지난달 나주시 노안면 동산마을 충전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나주시 외곽 지역의 실버 전통시장과 농업용 전기차 등의 충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귀농어귀촌 청정 전남으로 오세요

전남도 서울 지하철역서 유치 활동  
고향사랑기부제·전남서포터즈 홍보



전남도가 지난 22일 인구밀집도가 가장 많은 서울 도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전남도와 전남도귀농어귀촌인 연합회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민 유희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인 신용산역, 을지로역, 양재역 3곳에서 '세계로 옹비하는 대도와! 전남 행복시대' 홍보물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해 전남으로의 귀농어귀촌 분위기를 확산에 나섰다. 또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및 '전남사랑 서포터즈'를 향유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배부와 상담도 실시했다.

전남은 산·들·바다 등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 다양한 관광지를 지닌 매력적인 곳인데다, 생활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근 20대부터 40대 초까지 엠지(MZ)세

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젊은 층이 꾸준히 전남으로 이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도시민 유치 시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4만여 명이 이상 이주하고 있으며 올해 귀농어귀촌인은 총 4만6563명(정년 2만6820명, 58%)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정책실장은 "전남의 여러 강점을 적절히 활용한 도시민 대상 연령별 맞춤형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